

문학과 현대문명의 문제

장남수
영미어문학부

(1) 이번 세미나를 처음 기획할 때의 출발은 인문학의 관점에서 산업 도시의 문제를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목에서 보다시피 ‘산업도시’가 ‘현대문명’으로 바뀌었는데, 범위가 넓어져서 초점이 흐려지고 부담이 증가한 면도 있지만 딱히 한정된 범위가 없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장점도 생긴 듯하다.

우선 분명히 해둘 사항은 현대문명이 ‘16세기’ 이후 성립한 자본주의적 근대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근대가 처음부터 해방과 질곡, 가능성과 상실의 이중적 측면을 지니고 있듯 현대문명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 부문에 국한해서 생각하더라도 현대문명의 전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문자해독률의 증가와 책을 사 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겨주었지만, 바로 그런 이점이 문학과 인생에 대해 반성적으로 진지하게 사고하고 접근할 여유를 박탈해간 측면도 공존하는 것이다. 크게 보아 19세기의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근대의 부정적 측면이 그 긍정적 측면을 압도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영국의 낭만시인 워즈워스(Wordsworth)는 일찍이 1802년에 발표한 『『서정담시집』 서문』 (“*Preface to Lyrical Ballads*”)에서¹⁾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근대의 도시인일수록 “기괴한 사건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법이며, 이밖에도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1) M. H. Abrams, et al. ed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The Major Authors* (1962;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1996), pp. 1344-45 참조.

원인들이 가세해서 대상의 진위(眞僞)와 정부(正否)를 판단하는 “인간정신의 구분능력”을 위축시키고 급기야는 “거의 야만적인 무감각의 상태”로 빠뜨린다고 현대문명의 전개를 비판한 바 있다.

문학과 현대문명의 관계를 논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필자가 영문학 전공자이어서 그런지 영국의 비평가 리비스(F. R. Leavis)이다. 현대문명을 초기에는 ‘대중문명’이라고 칭하던 리비스는 1955년에 출판한 『소설가 로렌스』(*D. H. Lawrence: Novelist*) 이후 점차 ‘기술공학적·벤삼적 문명’(technologico-Benthamite civil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현대 기술공학의 핵심인 ‘벤삼적 방법’²⁾이 창조성에 적대적이고 무한한 팽창을 생명으로 하는 현대문명을 낳았다는 문제의식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자본주의경제나 자본주의 생산관계보다 기술공학적·벤삼적 문명이라는 용어를 택하는 리비스에게 그 나름의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체제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정당한’ 인식이 그의 논지에 다른 약점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다). 리비스가 비판하는 벤삼적 방법의 정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은, 그 자신이 셰익스피어(Shakespeare), 블레이크(Blake), 디킨즈(Dickens), 로렌스로 이어지는 영문학의 창조적 흐름³⁾을 구성하는 작가라고 극찬하는 디킨즈가, 1854년에

- 2) 바일런은 리비스에 대한 비평서에서 ‘벤삼적 방법’의 요체를 “과다한 합리성. 벤삼적 계산법 즉 인간적 가치의 치수를 재고 평균을 내고 수량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축소하려는 노력. 개인과 사회에 대한 원자론적 관점.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어떤 회생을 치르더라도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일 텐데 인간정신을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라고 요약한다. R. P. Bilan, *The Literary Criticism of F. R. Leavis* (Cambridge: Cambridge UP, 1979), p. 23.
- 3) 영소설의 ‘위대한 전통’과 영문학의 창조적 흐름, 이 두 가지를 논할 때 리비스에게서 발견되는 일정한 강조점의 이동과, 이 변화의 첫머리에 위치하는 그의 「『어려운 시절』론」(*Hard Times: An Analytic Note*)이 지닌 의의에 대해서는 줄고 「Scott 비평과 Dickens 비평을 통해 본 F. R. Leavis 문학관의 특징」, *UOU Report* 19 (1988), 10-11면 참조. 현대문명에 대한 리비스식 대안의 요체를 이루는 “교양있는 공중”의 건설과 그 중심기지 역할을 부여받은 대학, 영문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희, 『비평의 객관성과 실천적 지평: F. R. 리비스와 레이먼드 윌리엄즈

발표한 『어려운 시절』(*Hard Times*)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필자가 『어려운 시절』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려는 것도⁴⁾ 이 작품에서 문제 삼는 벤삼적 방법, 즉 공리주의적 합리성이 근대의 중요한 구성적 특징을 이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적 합리성이 근대의 한 가지 원리로 복무하는 측면은 양자가 ‘궁극적 가치’에 의거한 목적의 선택보다 형식적 합리성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알려져 있다시피 벤삼의 독창성은 실증적 과학방법을 인문·사회 분야에까지 전면적으로 도입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를, 그리고 각각의 이익과 행·불행을 최소단위로 분해한 후 계량화하는 벤삼의 방법은 수치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적이고 질적인 문제에 적대적이기 마련인데, 이 체계에서 창조적인 인간의 활동, 예컨대 문학 예술은 반대파에 속하면서 그 존재의의가 위협받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 예술은 근대의 대세에 저항하는 반대파의 위치를 포기하고 자본에의 투항을 적극적으로 결행하는 상품미학의 경향을 보이는바, 이 점은 뒤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예를 들면 예술과 시와 같은 특정분야의 정신적 생산에 적대적이다”⁵⁾라고 하는 맑스(Marx)의 지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영문학에서 도시를 무대로 본격적인 작가활동을 한 작가는 디킨즈가 처음이다. 태어난 것으로는 10여 년, 문단활동은 20여 년 뒤지면서 19세기 영국문학의 또다른 거봉을 이루고 있는 엘리엇(George Eliot)만 해도 주요 배경은 농촌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시야를 서구 다른 나라까지 넓혀서 도시를 중심으로 활약한 작가들을 살펴보면, 보들레르(Baudelaire)

연구』(서울: 창작과비평사, 1993), 61-69면 참조.

4) 필자는 『어려운 시절』을 우리말로 옮기기도 하였고 이 작품에 대한 글을 이미 발표한 바도 있다. 본고에서의 논의도 상당 부분 이미 발표했던 글에 빚지고 있다. 각각 줄여서 『어려운 시절』(1989; 서울: 푸른미디어, 1994) 및 줄고 『『어려운 시절』과 공리주의의 문제』, 『안과밖』 7(1999): 32-54 등 참조.

5)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On Literature and Art* (Moscow: Progress, 1976), p. 141.

의 도시가 빠리이고 휘트만(Whitman)의 도시가 뉴욕이라면 디킨즈의 도시는 가히 런던이라 할 수 있다. 빠리, 뉴욕, 런던이 한결같이 각각의 심장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디킨즈가 『어려운 시절』의 무대로 설정한 가상의 신흥공업도시 코크타운(Coketown)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작품에서 런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근대인들의 다양한 삶을 포착하는 성과를 거둔 디킨즈가 『어려운 시절』의 무대를 코크타운으로 설정한 것이 현대문명의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소심증 탓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다. 오히려 공업도시의 문제 역시 현대문명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핵심이며, 현대문명의 실상은 런던 같은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에서 드러나지만 신흥공업도시를 대표하는 코크타운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소설 『어려운 시절』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신흥공업도시 코크타운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이 도시의 모습을 다소 길더라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코크타운--인용자)은 붉은 벽돌의 도시, 공장 연기와 재가 만약 허락했다면 붉은 색이었을 벽돌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그러나 사실은 야만인의 물감 칠한 얼굴처럼 부자연스런 붉음과 검정의 도시였다. 그것은 기계와 높은 굴뚝의 도시였는데 그 높다란 굴뚝으로부터 끊임없이 연기의 뱀이 영원히 영원히 기어나와서 결코 풀어지지 않았다. 도시 안에는 검은 운하가 하나 있고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염료 때문에 자춧빛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었다. 창으로 꽉 찬 거대한 건물더미가 있는데 거기서는 하루종일 덜컹거리고 덜덜 떠는 소리가 들렸고, 우울한 광증에 사로잡힌 코끼리의 머리 같은 증기기관의 피스톤이 단조롭게 상하운동을 했다. 서로 똑같이 닳은 큰 길이 몇 개 있었고 한층 더 닳은 작은 거리가 많이 있었다. 그 거리에는 마찬가지로 꼭 닳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포도에서 같은 소리를 내며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 매일은 어제나 내일과 꼭 같았고 매해는 작년이나 내년과 꼭 같았다. …(중략)…

도시의 모든 공적 안내문은 살벌하게 하얀 바탕에 검은 글자로 똑같이 쓰여

있었다. 감옥이 병원일 수도 병원이 감옥일 수도 있었으며, 시청 역시 둘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었으며 또는 다른 무엇이 되더라도 안 될 만한 무슨 건축상의 장식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도시의 유형적인 면 어디나, 무형적인 면 어디나 사실, 사실, 사실뿐이었다. 맥초우컴차일드학교도, 디자인 학교도, 주인과 고용인 사이의 관계도 온통 사실뿐이었으며 산부인과병원에서 공동묘지에 이르기까지 사실만이 있었다. 그리고 숫자로 서술할 수 없거나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 만한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였다. 영원히, 아멘.

사실에 바쳐졌고 사실을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주장하는 이 도시는 물론 잘 굴러가겠지?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니었다고? 맵소사! (줄역 35-37면)

도시 전체의 단조롭고 기계적인 모습이 반복되는 구문과 표현,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데 코크타운을 ‘사실’만이 지배하는 획일적인 반생명의 도시로 만든 원리는 앞서 지적했던 대로 공리주의이다. 이때 관건이 되는 문제는 봉건적 유제를 개혁해서 영국을 구래의 악습과 폐해로부터 구하고자 한 운동이 바로 공리주의인데 디킨스가 어째서 공리주의를 불온시하는가, 하는 점이다. 공리주의야말로 영국사회의 법적·행정적·정치적 전(前)근대성을 합리적 공리성의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고자 한 노력이고, 특정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유발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방식을 통해 객관적 윤리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디킨스가 실제에서 정치와 행정 분야의 근대적 개혁을 목표로 1855년에 결성된 행정개혁위원회(Administrative Reform Association)의 회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나, 여러 작품들에서 봉건적 인물들이 지닌 미덕에는 그것대로 주목하면서도 그들이 지닌 비합리성과 구식성을 비판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그가 봉건질서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반동이어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을 듯하다. 오히려 공리주의적 개혁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달리 말하면 개혁을 추진하는 기본 정신과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 자체를 디킨스는 문제시하는 것이다.

코크타운에서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은 학교이사장이고 국회의원인 토마스 그래드그라인드(Thomas Gradgrind)이다. 그의 체계에서는 “숫자로 서술할 수 없거나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 만하다고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엄연히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이더라도 이 원칙에 어긋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더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일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67)에 의해 해결하는 식으로 그 나름의 합리성에 근거한 그래드그라인드의 공리주의는 산업기술과 자본제 생산양식의 핵심원리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학교가 학생에게 강요하는 추상과 계산의 정신이야말로 자본주의경제가 유지,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계산에 의거한 형식적 합리성이 생산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때는 주지하는 대로 산업혁명시기이다.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이전 사회의 작업장과 가정의 미분화, 작업과 유희의 혼재 상태는 생산성 향상에 저해되는 비합리적인 장애물로 부각되었고, 생산과정의 합리화·전문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인간적·개성적·질적 요구는 오류의 원천으로만 간주되게 되었다. 맑스가 자본주의경제를 분석하는 출발점으로 삼았던 기본단위가 상품인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개개 생산자가 실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이는 노동량이 아니라 이 노동량의 평균치, 즉 사회적 필요노동의 양이다. 개개 노동의 질적 차이 대신 노동의 양이 중시되며, 질적 차이도 양으로 환산해낼 수 있는 산술과 추상의 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까지 소용되는 사회적 필요노동량 간의 등가교환이라는 가치법칙이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사회인데, 이 소설에서 ‘사실’과 관련하여 거둬 등장하는 계산, 도표, 조사서, 보고서 등이야말로 상품생산과 교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봉사한다. 그러나 산술과 추상의 정신에 매달리는 한 피상적인 인간성 이해에서⁶⁾

6) 맑스는 공리주의자인 벤삼이 상정한 인간이 부르즈와지의 추상체에 불과한 존재이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간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에 대한 그의 단순하고 피상적인 이해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Karl Marx,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I, trans. Ben Fowkes (Harmondsworth: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법이라는 진실은, 그레드그라인드가 자기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맏이인 루이저(Louisa)가 난롯불을 보며 끊임없이 궁급해하는 소리를 짐작조차 못하는 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사의 실제 진행에서도 그레드그라인드가 대표하는 합리주의의 정신은 개인의 무한정한 이익추구를 정당화하는 자유방임주의와 결합하는데, 『어려운 시절』에서 그레드그라인드와 합세하여 빅토리아 시대 공리주의의 총체를 보여주는 인물이 코크타운의 대표적 공장주인 바운더비(Bounderby)이다. 그레드그라인드와 그의 “막역한 친구”(27) 바운더비가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주입하는 내용은 푸코(Foucault)가 『훈육과 처벌』(*Discipline and Punish*)에서 제시한 ‘훈육’의 개념으로, 즉 대중을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순응시키는 훈육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중이 자본주의경제 리듬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압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기제까지 총동원되는 법이다. 처음부터 허풍선이 사기꾼의 이미지와 겹쳐져서 제시되는 바운더비는, 기회만 생기면 아무 데서나 자신이 무일푼으로 출발하여 현재의 지위를 일궈낸 인물임을 자랑한다. 하지만 바운더비가 떠벌리는 ‘성공담’은 딱히 자기만족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의 허풍은 엄연한 사회적 효용이 있는바, 자수성가의 신화는 하층민의 개혁 요구를 억누르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자유방임주의자인 스마일즈(Smiles)는 근면, 검약, 자기수양을 권면하는 『자조론』(*Self-Help*)이라는 저서에서 “몇몇 사람이 성취한 것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방법을 사용해보아라,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⁷⁾라고 설교하였다. 빈곤을 당사자의 게으름이나 방탕한 생활 탓으로 돌리는 이런 논리는, 빈곤을 당사자 탓으로 치부하는 개정구빈법의 전제나 다수의 빈곤을 합리화하는 맬서스(Malthus)의 인구론에서 보듯 당대 중산층 사이에 폭넓게 퍼져 있던 논리이다. “육 펜스로 육만 파운드를 번

Penguin, 1976), pp. 758-59의 주 51 참조.

7) Pam Morris, *Dickens's Class Consciousness: A Marginal View* (London: Macmillan, 1991), p. 8에서 재인용.

코크타운의 자본가 누구나, 육만에 가까운 일손들 각자가 육 펜스로 육만 파운드를 벌지 못하는 이유가 궁핍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며, 이런 사소한 일도 하지 못한다고 일손들 모두를 대체로 비난했다”(147)고 하는데 이런 신화야말로 사실이 아니라 “허구”(147)에 불과한 것이다. 바운더비의 자수성가에 대한 ‘허구’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황금수저를 갖고 자라수프와 사슴고기”(92, 157, 291면 등)를 먹겠다는 주장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본가 특유의 자기 편의적 사고, 그리고 ‘부당한’ 간섭을 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차라리 재산을 대서양에 집어던지겠다”(140)고 협박하는 자본가의 허세와 함께 “중산층 권력의 행사를 지원하고 유지하는 허구”⁸⁾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담론은 부르즈와지가 하층민에 대해 행사하는 힘이 우월한 경제력과 물리력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조작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사실’의 세력이 강요하는 형식적 합리성과 반대편에 위치하면서 공리주의가 부정하는 공감력과 상상력으로 실질적인 합리성을 대표하는 인물은 씨씨(Sissy)와 꼭마단이다.⁹⁾ 여기서 자세히 논할 겨를은 없지만, 이들의 인간성과 상식성은 민중의 자발성, 창의성에 맞닿아있으면서 그래드그라인드·바운더비 체제를 비판하는 준거가 된다. 사실, 근대는 씨씨가 대표하는 실질적 합리성이 진전돼온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코크타운의 세계가 대표하는 형식적 합리성이 확장돼온 역사이기도 하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부분에서 고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추구되는 합리성이 극단으로 나아간 결과를 우리는 공황에서 볼 수 있는데, 공황이야말로 개별작업장의 합리적 생산과 별도로 자본주의경제 전체가 지니고 있는 비합리성과 우연성의 극명한 표

8) Rosemarie Bodenheimer, *The Politics of Story in Victorian Social Fiction* (Ithaca & London: Cornell UP, 1988), p. 189.

9) 필자는 앞서 언급했던 줄고에서 씨씨와 꼭마단에 대해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씨씨가 보여주는 실질적 합리성 및 진정한 창조성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절』과 공리주의의 문제」, 34-36, 45-48면 참조. 꼭마단의 작중 역할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같은 글, 41-45면 참조.

현인 것이다. 대상의 총체적 연관이 아니라 각 부분체계의 명목적 합리성에 집착해서는 대상 사이의 연관과 질적 차이를 고려할 때만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합리성을 놓치기 일쑤인데, 부르즈와지의 물화된 의식의 문제라고 흔히 지적되는 이러한 폐해는 자본주의적 분업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모든 개별현상들 속에서의 엄격한 합법칙적 필연성과 전체과정의 상대적인 비합리성 사이의 상호작용”¹⁰⁾에 근거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지닌 맹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디킨즈의 공리주의 비판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예로 윌리엄즈는 디킨즈가 공리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토마스 그래드그라인드를 단죄함으로써, 많은 양의 사회개혁과 산업개혁을 사실상 촉진시켰던 그런 종류의 사고뿐 아니라 조사방법과 입법활동 역시 단죄”¹¹⁾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디킨즈에 대한 이런 식의 비난은 전근대적 악습을 개혁해나가는 공리주의의 실제적 성과는 그것대로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합리성이라는 미명하에 생산과 노동의 본질적 위기를 불러오는 공리주의의 근본원리를 문제삼는 작가의 착안점에 멀리 못 미치는 비판인 듯하다. 사실, 위험한 기계 주위에 울타리를 둘러쳐서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코크타운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는 공리주의 개혁가들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그것이 전체적인 시야에 의해 자리매김된 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코크타운 같은 생지옥을 ‘전달’ 만한 곳으로 바꾸는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¹²⁾ 디킨즈의 비판이 바로 이러한 차원에 향해지고 있는 것이다.

10) Georg Lukács, “Reification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Proletariat”,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trans. Rodney Livingstone (Cambridge, Mass.: The MIT P, 1968), p. 102.

11)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1958; Harmondsworth: Penguin 1963), p. 105. 윌리엄즈는 디킨즈의 공리주의 비판에 대한 이런 혹평을 이후의 글에서는 수정한다. 대표적인 예로 Raymond Williams, “Dickens and Social Ideas,” *Dickens 1970*, ed. Michael Slater (London: Chapman & Hall 1970), pp. 77-98 참조.

12) 공리주의적 개혁이 어떠한 성격을 지닌 것이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예화를

그래드그라인드 같은 개혁가들은 세상만사와 그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편협한 합리주의의 틀에 맞춰서 사실과 상상으로 나눈다. 우리 역시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어려운 시절』을 사실에 대한 상상의 위위나 들의 절충을 역설하는 수준으로 읽을 수밖에 없을 테지만¹³⁾--이 틀에 갇혀서 이 작품을 읽어내는 20세기의 많은 비평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판 그래드그라인드’인 셈이다--디킨즈의 실제 생각은 사실/상상의 이분법을 지양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씨씨와 그래드그라인드, 씨씨와 제3의 신사 사이에 진행되는 교실의 문답장면을 보나, 코크타운의 공장주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허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나 명백하다. 예의 이분법을 따른다면, 사실의 세력을 대표하는 위인은 그래드그라인드와 바운더비이고 상상 쪽에서 있는 인물은 씨씨와 꼭마단일 것이다. 그러나 그래드그라인드의 사실 개념은 앞서 말했듯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라도 자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개념이며, 바운더비는 어떤 의미로는 작중 인물 중에서 어느 누구

참조할 필요가 있다. 크레이그(Craig)에 따르면, 공리주의자들은 코크타운 같은 생지옥을 견딜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옛날의 공유지를 자갈길도 있고 다양한 나무와 꽃도 있는 정원으로 개조한 후에 주중에는 6펜스로, 예배시간을 제외한 일요일에는 무료로 입장을 허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원으로 개조된 이런 땅은 원래 민중이 자유롭게 뛰어놀기도 하고, 게임도 즐기고, 연애도 하던 곳이었다. David Craig, “*Hard Times and the Condition of England*”, *The Real Foundations: Literature and Social Change* (New York: Oxford UP, 1974), p. 118 참조.

- 13)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절충주의적 생각은 차라리 그래드그라인드가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한 과정에 가깝다. 1권 14장에서 그래드그라인드는 씨씨가 학교 교육에 적용하지 못하는 지진아이지만 따뜻하고 성실하며 착한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그 나름으로 좋게 평가한다. 간단히 말해 씨씨에게 “도표로 표시할 수 없는 무엇”(116)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단순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의 그는 도표로 표시할 수 있는 사실과 표시할 수 없는 그 무엇, 둘 다를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루이자의 비난을 받고, 무엇보다도 톰(Tom)과 빗썸(Bitzer)에 의해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사실의 철학이 그 자신에게 거꾸로 겨누어지면서 공리주의의 문제를 온몸으로 실감하기까지, 그래드그라인드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머나먼 것이다.

보다도 상상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자신의 낮은 출생신분을 꾸며낼 때 그의 상상력은 자유방임주의의 절면피한 이윤추구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씨씨는 또한 가장 상식적이고 현실에 충실한 인물이다. 코크타운을 지배하고 유지하는 사실은 “세상과 모든 생명체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유일하게 충분한 설명으로 거만하게 제시된 협소하고 무미건조한 통계자료나 정의”¹⁴⁾를 의미한다. 그런데 디킨즈가 코크타운에 대한 묘사에서, 그리고 그랜드그라인드나 바운더비에 대한 묘사에서 역으로 보여주는 바는, 사실적인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사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섞어서 구사하는 표현 방법이 대상을 설명하고 그 본질을 파헤치는 데 있어 더 정확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현실이다. (디킨즈가 이들을 지양하는 어떤 ‘제3의 원칙’ 대신에 둘 중의 어느 한 편에서 있다면 사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을 통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랜드그라인드와 바운더비가 지니고 있는 사실관, 상상관의 비상식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디킨즈의 계산은, 공리주의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진정한 합리성에 의해 기존의 가치와 교육, 생산체계의 조직원리가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까닭은 근대의 출발과 그 진행이 형식적 합리성에 매달려서 대상 사이의 질적 차이와 그 연관에 대한 고려 및 민중의 창의성을 크게 억압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자본주의적 근대의 전세계적 대세를 이루는 그랜드그라인드의 사고방식, 즉 기존의 합리주의 틀에 매달려서 근대세계의 조직과 운영원리를 합리적으로 아무리 재조정해보았자 또 다른 ‘코크타운의 세계’를 양산하는 데 그칠 뿐이다.

(3) 『어려운 시절』에서 디킨즈가 반영하는 현실이나 비판하는 내용은 오늘날의 시대에 얼마만큼의 적실성을 지니는 것인가. 벨(Bell)은 『탈산업사회의 도래』(*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라는 책에서 산

14) David Sonstroem, “Fettered Fancy in *Hard Times*”, *PMLA* 84-3 (1969), p. 520.

업사회는 이미 끝난 것인 만큼 자본주의 근대의 문제는 현금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구시대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확실히 자동화와 극소전 자기기술, 다국적기업체로 특징지을 수 있는 오늘날의 생산이 산업혁명 이후 특정 단계의 생산방식과 달라진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금의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의 부정적 문제점이 제거되었다고 간주하는 태도는 그릇된 것인데, 우리는 만델(Mandel)의 생각을 따라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19세기의 그것보다 ‘더욱 순수한 자본주의’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벨이 주목하는 과학과 지식·기술공학적 발명, 그리고 정보가 중시되는 특징이야말로 실은, 자본주의의 확산을 가리키는 지표인 것이며,¹⁵⁾ 탈산업사회의 작업 역시 산업사회의 비인간적 노동과 연속되어 있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수량화·평준화에 기초한 산업사회를 어떤 의미로 확대 증폭시킨 사회가 이진법에 기초하여 컴퓨터가 일궈내는 탈산업사회인 것이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기만 하면 혹은 생산력의 증가와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기만 하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풍요를 맘껏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커다란 기대’가 자칫 ‘잃어버린 환상’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르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실업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를 비롯하여 삶의 근본적인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코크타운의 노동자 스티븐(Stephen)이 항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도록 끌려와서 실을 짜거나 보풀을 세워가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184)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째서 행복은 “해를 거듭하고 세대가 바뀔수록”(184) 점점 멀어지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려운 시절』에서 디킨즈가 지적하는 바, 사실과 상상,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과 자기충족이 분리되어 있는 한, 하루의 노동시간이 아무리

15) 만델의 ‘후기자본주의론’을 받아들이는 제임슨은 탈산업사회를 주장하는 벨이 주목하는 지표야말로 자본이 이제까지 영토화하지 않았던 미개척지마저도 자기 영토로 삼는 자본의 ‘팽창’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Fredric Jameson, “Foreword”,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4), p. xiv 참조.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아무리 늘어도 또 빈곤이 아무리 경감해도 그것은 또다른 ‘코크타운의 세계’에 불과한 것이다.

제임슨에 따르면 탈산업사회라고 잘못 칭해지는 현금의 후기자본주의는 이제까지 자본에 대한 저항진지의 역할을 하던 자연과 무의식마저 자본에 의해 식민지화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자연은 농업혁명에 의해 파괴된 제3세계의 농업을 의미하며, 무의식은 미디어 및 광고산업의 발달과 함께 변질된 문학 예술을 주로 의미한다.¹⁶⁾ 자본은 그것이 확장할 공간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면 이전까지 자본의 영역 바깥에 놓여 있던 부분을 새로이 영토로 개척하여 스스로를 유지하고 확대해내는 속성을 지니는바,¹⁷⁾ 이는 문학 예술과 관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상상의 이분법 위에서 ‘사실’만을 절대시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문학 예술을 도외시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¹⁸⁾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이 문학 예술을 가르친 주목적은 일터에서 지친 채로 집에 돌아온 남성을 따스하게 맞아줄 숙녀를 양성하거나 식민지 백성에게 식민도국의 정신적 우월성을 주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그래도 자본의 성장에 아직 여유가 있어서인지 진정한 문학이 자본의 자장 바깥에 자리잡을 여백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본이 문학 예술을 직접 포섭하여 자기증식에 동원하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대략 18세기 후반에 후견인

- 16)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P, 1991), p. 36 참조.
- 17) 하트는 푸코, 들뢰즈를 헤겔, 맑스와 비교하는 글에서 푸코와 들뢰즈가 암시하거나 언급하는 군주사회(체제), 훈육체제, 통제체제를 각각 봉건적 생산관계, 자본에 의한 노동의 형식적 포섭단계, 그 실질적 포섭단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명한다. Michael Hardt, “The Withering of Civil Society”, *Deleuze and Guattari: New Mappings in Politics, Philosophy, and Culture*, ed. Eleanor Kaufman and Kevin Jon Heller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8), pp. 23-39 참조. 제임슨이 주목한 새 단계, 즉 자본에 의해 자연과 무의식마저 근절되는 단계는 통제체제 내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8) 예컨대 그레드그라인드 학교의 교사인 맥초우컴차일드(M'Choakumchild)는 온갖 사실적 지식과 산술뿐 아니라 작시법과 성악, 회화에도 정통한 인물이며, 코크타운에는 디자인 학교도 엄연히 존재한다.

(patron) 제도가 붕괴된 이후 문학 예술품이 상품의 위치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이 경우에는 상대적인 차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이전 단계까지는 작품의 내적 자율성은 일단 인정된 후 그 전제 위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교환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생산과정에, 아니 생산의 기초 단계부터 자본이 개입하여 그 영혼까지 송두리째 상품화하는 것이다. 만물의 상품화가 진행될수록 자본 바깥에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을 수 없는데, 제임슨이 60년대 이후 영상, 회화, 문학 등에서 일어난 문화면의 변화가 그 저변에 놓인 현실 자체의 심대한 변화를 표현한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문화뿐 아니라 사회, 경제 등 전부분에 걸쳐 일어나는 전반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새로이 벌어진 두드러진 일은 ‘문화의 폭발’이라고 칭할 만한 현상이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데, 매체, 광고, 이미지, 일상생활의 미학화 등의 문화현상이 수행하는 역할은, 관심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분명히 보이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겉보기에 좀더 새롭게 보이는 상품생산이 중요하게 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미학적 갱신이나 실험에서 유래하는 스타일상의 변화가 상품 판매에 결정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고, 미적 생산과 일반 상품생산을 구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고흐(Van Gogh)의 농사꾼 신발 그림과 종종 비교되는 ‘다이아몬드 가루 신발’(Diamond Dust Shoes)를 그린 워홀(Andy Warhol)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환상적인 종류의 예술이다”¹⁹⁾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제, 독일 고전철학 이래 모더니즘까지만 해도 자본의 존재 외곽에 위치해서 자본을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준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던 문화가, 상품미학으로 변모하면서 자본과 분리할 수 없도록 결합된 것이다. 자본의 필요에 의한 이러한 변화를 제임슨이 문화의 소멸이 아니라 문화영역의 확장이라고 설명한다는

19) Alex Callinicos, *Against Postmodernism: A Marxist Critique* (Cambridge: Polity P, 1989), p. 155에서 재인용.

점이 그의 특이한 면인데, “우리는 문화의 자율적 영역의 해체를 오히려 폭발이라는 각도에서, 즉 경제학의 가치와 국가권력에서부터 다양한 실천과 인간심리의 구조 자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면면이, 모종의 독창적이지만 아직 이론화되지 않은 의미에서 이미 ‘문화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문화가 엄청나게 팽창했다는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²⁰⁾는 것이다.

전 시대의 문명이 진정한 문학 예술에 우호적인 환경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구화의 만개와 더불어 자본의 바깥은 없다라는 진술이 실질적으로 성립할 만큼 고도화된 현재의 문명이 창조적인 문학 예술에 가하는 위협은, 그것이 열어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새삼 압도하는 듯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열어준 가능성으로는 그것이 추구하는 대중성과 민주성을 꼽을 수 있겠다.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통속화되어 가는 환경에서 예술의 혼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대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엘리트주의의 길을 택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문학 예술이 좀더 대중적이고 민주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 하에 모더니즘을 거치면서 약화된 예술과 일상적 삶의 연관을 재구축하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대중성은 개인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는 대중성이 아니라 자본의 새로운 필요에 부응하는 만큼의 대중화·다양화에 불과한 것이며, 그 민주성이란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모더니즘의 ‘고전’이 대학의 독서목록에 편입되는 현상이 민주적이고 평민적인 속성을 지닌 대중적 압력에 의해 일어나지만, 이 ‘제도권 진입’은 그 ‘고전’이 지니고 있는 폭발성 뇌관을 제거한 채 이루어진 일일 뿐 아니라 60년대 대학제도의 관료적 팽창과도 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거론되는 ‘문학의 위기’는 현대문명의 대세를 이루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 즉 그 형식적 합리성이 진정한 문학의 자리를 끊임없이

20)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p. 48.

위협하는 가운데, 그 세력과 긴장관계에 서기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타협과 순응의 길을 택한 문학가 자신이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작 필요한 것은 두셀(Dussel)이 말하듯²¹⁾ 도구적 이성을 단순히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00년간 발전해온 세계체제 자체를 극복하는 근대 초극의 과제인데 말이다.

참고문헌

- 김영희. 『비평의 객관성과 실천적 지평: F. R. 리비스와 레이먼드 윌리엄즈 연구』.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3.
- 장남수. 『『어려운 시절』과 공리주의의 문제』. 『안과밖』 7(1999): 32-54.
- ___ 역. 찰스 디킨즈. 『어려운 시절』. 1989; 서울: 푸른미디어, 1994.
- Bilan, R. P. *The Literary Criticism of F. R. Leavis*. Cambridge: Cambridge UP, 1979.
- Bodenheimer, Rosemarie. *The Politics of Story in Victorian Social Fiction*. Ithaca & London: Cornell UP, 1988.
- Callinicos, Alex. *Against Postmodernism: A Marxist Critique*. Cambridge: Polity P, 1989.
- Craig, David. "Hard Times and the Condition of England". *The Real Foundations: Literature and Social Change*. New York: Oxford UP, 1974.
- Dussel, Enrique. "Beyond Eurocentrism: The World-System and the Limits of Modernity".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Ed. Fredric Jameson and Masao Miyoshi. Durham and London: Duke UP, 1998.
- Hardt, Michael. "The Withering of Civil Society". *Deleuze and Guattari: New Mappings in Politics, Philosophy, and Culture*. Ed. Eleanor Kaufman and Kevin Jon Heller.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8.
- Jameson, Fredric.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21) Enrique Dussel, "Beyond Eurocentrism: The World-System and the Limits of Modernity",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ed. Fredric Jameson and Masao Miyoshi (Durham and London: Duke UP, 1998), p. 19 참조.

- Durham: Duke UP, 1991.
- Leavis, F. R. "*Hard Times: The World of Bentham*". F. R. and Q. D. Leavis. *Dickens the Novelist*. 1970; Harmondsworth: Penguin, 1972.
- Lukács, Georg. "Reification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Proletariat".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Trans. Rodney Livingstone. Cambridge, Mass.: The MIT P, 1968.
- Marx, Karl.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I. Trans. Ben Fowkes. Harmondsworth: Penguin, 1976.
- ___ and Frederick Engels. *On Literature and Art*. Moscow: Progress, 1976.
- Morris, Pam. *Dickens's Class Consciousness: A Marginal View*. London: Macmillan, 1991.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1958; Harmondsworth: Penguin 1963.